

“늦둥이라 애교 많았는데...못 지켜줘 어른들이 미안해”

후진 재활용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광주 7세 초등생 추모 줄이어

“어른들이 미안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래.” 3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A(7·초1)양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향소에는 아이 손을 잡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분향소 한편에는 어린아이가 좋아할만한 과자와 음료, 치킨과 인형 등이 한가득 놓여있었다. 분향소에 마련된 포스트잇에는 ‘아가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어른들이 미안해’, ‘웃는 게 사랑스러웠던 우리 아이 그곳에서 더 행복하게 웃으며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랄게’ 등 추모 글귀가 적혀 있었다.

A양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 체육복 차림으로 분향소를 찾았다.

자신보다 더 어린 학생을 추모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듯 학생들은 분향소 앞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미리 준비해온 작은 간식을 꺼내 분향소 한편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A양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박세준(12)·남강이(12)·임정후(12)군은 작은 막대 사탕을 분향소에 올렸다.

박군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지만 같은 학교에 다녔고, 같은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더 안타깝고 속상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윤정원(여·13), 송진서(여·13)양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계속 생각이나 분향소를 찾아왔다. 어린 친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등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남 일 같지 않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인근 아파트에서 7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여·40)씨는 분향소를 떠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모았다.

강씨는 “어린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 사

사설 업체 차량에 안타까운 참변 “안전 수칙만 잘 지켰어도...” 울분 유족들 옛된 영정사진 보며 눈물만

친구들 과자·사탕 가져다놓고 울며 “하늘에서나마 부디 행복하기를” 복구, 7일까지 추모공간 운영

고가 남 일 같지가 않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추모하고 싶지만 실례일 것 같아서 분향소에 왔다”고 말 끝을 흐렸다.

광주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A양의 빈소에서는 유족들의 오열과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A양의 작은 삼촌은 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어리고 어린 몸이 스러진 현장에 맨 정신으로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작은삼촌은 회상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입관식도 아이가 전날 덮었던 이불과 옷가지로 대신했을만큼 A양의 상태는 참혹했다는 것이 유가족의 설명이다. 유가족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아이가 마지막까지 매고 있었던 책가방 안에 담긴 찌그러진 텀블러는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중학생 오빠에 이어 태어난 ‘늦둥이’ A양은 가족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컸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수줍음이 없어 어디서나 밝고 명랑했던 아이로 가족들은 기억하고 있다.

작은삼촌이 A양을 마지막으로 본 건 한달 전 여수 풀빌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다. 차 안에서 오빠



지난 31일 주민들이 사고현장인 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에 광주 북구가 7일까지 운영하는 추모공간에서 주민들이 A양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작은삼촌은 설명했다.

작은 삼촌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인도’였다. 인도가 차가 올라가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청소업체에서 묵인해온 사실”이라며 “당장 내일이

발인이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조문조차 오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당시 수거차량은 정부의 안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설업체 차량<10월31일 광

주일보 6면>으로 3인 1조 작업 원칙이나 작업중 알림 표시 등 미실치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 홀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방과후 귀가하던 A양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자신의 집 앞에서 참변을 당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발

기념재단, 스카이에일리 기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허점 스카이에일리 기자가 고발당했다.

지난 31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과 광주시는 이날 권씨와 허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허씨가 지난 6월 20일 권씨와 인터뷰를 하고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 ‘북한 청진에 있는 (남파) 영웅들의 비석은 사실’이라는 등 5·18을 왜곡·폄하하는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허씨는 지난 7월 8일 ‘권씨의 5·18 북한 개입 관련 발언은 사실’, ‘무기고 40여 곳을 한꺼번에 털고 광주교도소를 습격한 사람들은 결코 순수한 광주시

민일 수 없다’는 등 내용의 왜곡 보도를 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재단과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특수군 개입설’의 허위성을 확인한 점, 앞서 똑같이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제기했던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허위사실유포로 실형을 받아 형 집행중인 점 등에서 권씨와 허씨의 주장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민주당 등 일부 단체가 허씨의 기사를 인용한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시하고, 허씨는 이를 다시 기사로 쓰는 방식으로 왜곡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도 재단은 지적했다.

한편, 재단과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 9월 10일 광주 도심에 북한군 개입설, 가짜유공자설 등 내용을 담은 5·18 왜곡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송중 도주 불법도박 외국인 광산경찰, 18시간만에 붙잡아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이 호송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18시간만에 붙잡혔다.

지난 3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0분께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주한 베트남 국적 A씨를 18시간만에 다시 붙잡았다.

불법도박을 하던 A씨는 외국인 일당 11명과 함께 붙잡혀 경찰차에 분리, 호송돼 광산경찰서로 이동했다.

차에서 내리던 A씨는 경찰관이 압송을 위해 팔짱을 끼려하자 순간 밀치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광산구 운수동의 한 사찰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치매 노모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어머니·형 죽게한 40대 징역 6년

광주지법 목포지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차에 태우고 바다에 뛰어들어 노모와 형이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40대에 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지혜)는 지난 31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9일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SUV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채 바다로 주행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을 했던 A씨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다.

A씨는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를 앓던 모친

을 간병하다 2022년 증상이 심각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난이 가중되자 A씨는 형, 모친과 함께 모두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양병원에 보내는 등 충분한 방법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륜을 거스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평생 후회·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